프랑스의 大學 財政

—世界 주요국 大學 財政의 경향(4)—

敎育資料部

世界 주요국 大學 財政의 경향
1. 美國의 大學 財政
2. 日本의 大學 財政
3. 英國의 大學 財政
4. 프랑스의 大學 財政
5. 西獨의 大學 財政

1. 大學敎育制度

프랑스 대학교육 제도의 특징은 한마디로 교육기관의 '다양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후기 중등교육 수료 자격인 바카로레아(Baccalauréat) 수준 이상의 교육 기관을 모두 포괄하여 대학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① 대학교(universités), ② 그랑제콜(grandes écoles), ③ 기술단기대학(IUT), ④ 상급 기술자 양성 과정(STS), ⑤ 그랑제콜 준비급(CPGE), ⑥ 전문학교(écoles spécialistées), ⑦ 사범학교(écoles normales d'instituteurs)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기관이 이에 포함된다.

프랑스의 대학교육 기관의 특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universitiés)는 프랑스 대학교육의 중핵이며 유럽 최고의 전통을 갖는 고등교육 기관이다. 문과, 법과, 이과, 의과를 중심으로 교원, 법조, 연구자, 의사 등 지식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고 있다. 산업 사회의 인력 수요에 따른 실학 분야, 공, 상, 경영, 행정 등은 주로 그랑제콜(grandes écoles)이라고 하는 대학교와는 별개의 일군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그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등교육 기관에의 입학은 이른바 '입학 개방제'라고 하여 바카로레아 취득자는 누구라도 자유로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그에 반하여 그랑제콜은 격렬한 입학 경쟁 시험을 거쳐 입학이 허가되며 정원 관리와 통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고등교육의 수요는 인문, 법, 경제학 등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팽창되어 고등교육 학생 수는 대학교에서만 유독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대학교의 예산·시설 등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의 교육 여건은 다른 고등교육 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 또는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시설 설비의 과밀화, 노후화, 교육 내용의 전부화, 중퇴자의 증가, 취직의 악화 등의 문제 때문에 대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그랑제콜은 입학을 입학 시험에 의하여 제한하며 우수한 학생만을 선발할 수 있고 특별 투자를 통하여 정예교육을 할 수 있었다. 이에 일반 대학교는 그랑제콜에 비하면 일반적으로 교

육 조건이 열등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랑제콜은 기술계와 경영 상업계가 있는데, 대부분의 기술계는 정부의 부처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이고 경영 상업계는 대부분이 사립이다. 대학은 원칙적으로 국립이며(현재 71 개교에 학생수 88만 3천 명), 사립대학은 가톨릭계의 신학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소수(10 개교, 1만 8천 명 재학)가 있다.[1]

둘째, 기술 단기 대학부(IUT, Institutes Universitaires de Technologie)는 1960 년대에 시작된 고도 경제 성장이 요구하는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이는 수업 연한 2년의 단기 대학으로서 전문 영역을 교수한다는 점, 입학자 선발, 교육 내용, 방법 등 여러 측면에서 그랑제콜과 같다. 전기, 기계, 정보, 기업 경영 실무, 상업 등 전문 기술 교육을 실시하며 1984 년에 66 개의 학교에 6만 명이 재학하고 있고 모두 국립이다.

셋째, 상급 기술자 양성과정(STS, section de techniciens supérieurs)은 수업 연한이 2년으로서 금속, 기계, 전기, 관광, 비서, 회계 등 전문 직업 교육을 한다. 일반적으로 리세에 부설되는데 사립의 경우에는 독립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넷째, 그랑제콜 준비급(CPGE, classe préparatoire aux grande écoles)은 그랑제콜 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학교로서 일반적으로 리세에 부설되어 있다. 대부분이 국립이고 사립은 10% 정도이다.

다섯째, 전문학교(écoles spécialistées)는 일종의 직업 학교로서 회사의 실업 전문가, 간호원, X선 기사 등의 의료 전문 직원, 사회 복지 전문 직원, 공증인, 법원 서기 등을 양성하는 교육 기관이다. 수학 연한은 2~3 년으로 기술자, 바카로레아 취득자뿐만 아니라 바카로레아 미취득자도 입학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여섯째, 사범학교(écoles normales d'instituteurs)는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하며 수학 연한은 3 년이다.

여기까지 프랑스의 고등교육 제도로서 포스트 바카로레아 교육 기관을 개괄하였다. 여기에는 1984 년 현재 137만 6천 명 해당 연령 인구의 32%가 재학하고 있다.

사립의 대학교육 기관은 사립대학교, 사립 그랑제콜, 사립 상급 기술자 양성 과정, 사립 그랑제콜 준비급, 사립 전문학교가 있는데 재적 학생수는 전체 학생 수의 10%에 지나지 않는다.[2]

2. 大學敎育 財政의 現況

먼저 프랑스 대학 교육비의 비중을 다른 영역의 교육비와 비교하여 주요 연도별로 알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프랑스의 단계별 교육비의 비중(current educational expenditures in France, by level)

단위 : 백만 프랑(unit : mil. Franc)

구분(classification)	1974	1976	1978	1980	1982
총 교 육 비 (total educational Exp.)	77,698 (100.0)	105,326 (100.0)	133,574 (100.0)	170,367 (100.0)	245,902 (100.0)
고등교육비 (higher education Exp.)	9,803 (12.6)	12,706 (12.0)	15,827 (11.8)	19,410 (11.3)	28,605 (11.6)
초등교육비 (primary education Exp.)	20,367 (26.2)	27,411 (26.0)	34,331 (25.6)	44,156 (25.9)	63,193 (25.6)
중등교육비 (secondary education Exp.)	23,297 (29.9)	32,929 (31.2)	41,300 (30.9)	53,676 (31.5)	81,264 (33.0)

주 : ( ) 안은 %임.

자료 : SPRESE Ministere de l'Education Nationale, *Repères et Références Statistiques*, 1986, p.27.

1) "Higher Education in France", New York, Cultural Services of French Embassy, 자료.

2) 本間政雄, "フランスの高等教育財政をめぐる最近の動向", 高等教育財政の現狀—國際比較と政策課題. 高等教育研究所(紀要, 第8號), 日本 東京 : 高等教育研究所, 1988, pp.130~151.

〈표 2〉 프랑스 교육비의 구조(교육단계별, 항목별, 부담주체별(1982))

(composition of educational expenditures in France, by purpose)

단위 : 백만 프랑(unit : mil. Franc)

구분(classification)[1]		총계 (grand total)	국가(national)			지방공공단체 (state)	정부관계기관 (public organization)	기업 (business)	가계 (household)
			국민교육성	타성·청	계				
총계 (grand total)		245,902 (100.0)	147,712 (60.1)	17,665 (7.2)	165,377 (67.3)	38,489 (15.6)	954 (.4)	12,155 (4.9)	28,927 (11.8)
학교교육 (school education)	초등교육	63,193 (100.0)	38,222 (60.5)	91 (.1)	38,313 (60.6)	24,035 (38.1)	—	—	845 (1.3)
	중등교육	81,264 (100.0)	70,489 (86.8)	2,871 (3.5)	73,360 (90.3)	4,792 (5.9)	228 (.3)	1,384 (1.7)	1,500 (1.8)
	고등교육	28,164 (100.0)	21,725 (77.1)	3,206 (11.4)	24,931 (88.5)	482 (1.7)	320 (1.1)	1,425 (5.1)	1,006 (3.6)
	기타[2]	5,160 (100.0)	766 (14.8)	512 (10.0)	1,278 (24.8)	1,699 (32.9)	67 (1.3)	1,108 (21.5)	1,008 (19.5)
학교외교육 (out of school education)		24,008 (100.0)	1,269 (5.3)	9,317 (38.8)	10,586 (44.1)	228 (0.9)	216 (.9)	7,983 (33.3)	4,995 (20.8)
교육활동소계 (educational activities)		201,789 (100.0)	132,471 (65.7)	15,997 (7.9)	148,468 (73.6)	31,236 (15.5)	831 (.4)	11,900 (5.9)	9,354 (4.6)
집기경비 (additional expenses)	행정비	5,132 (100.0)	4,073 (79.4)	905 (17.6)	4,978 (97.0)	127 (2.5)	27 (0.5)	—	—
	식비기숙비보조	23,642 (100.0)	8,276 (35.0)	659 (2.8)	8,935 (37.8)	4,010 (17.0)	46 (.2)	236 (1.0)	10,415 (44.0)
	기타[3]	2,600 (100.0)	1,948 (74.9)	83 (3.2)	2,031 (78.1)	488 (18.8)	50 (1.9)	19 (.7)	12 (.5)
물품·서비스 구입비 (goods and services)	학교버스	3,587 (100.0)	767 (21.4)	21 (.6)	788 (22.0)	2,628 (73.3)	—	—	171 (4.7)
	학용품교재	6,378 (100.0)	177 (2.8)	—	177 (2.8)	—	—	—	6,201 (97.2)
	의복, 임간·해병학교 등	2,774 (100.0)	—	—	—	—	—	—	2,774 (100.0)
	견습교원 급여 (고등교육비에 포함)	3,268 (100.0)	3,268 (100.0)	—	3,268 (100.0)	—	—	—	—

자료) SPRESE,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Repères et Références Statistiques*, édition 1986, p. 27.

주 1) 부담 구분은 「최종부담자」

2) 예술교육, 현장실습직업교육(apprentissage) 등 포함

3) 진로지도, 학교보건, 교육연구, 대학도서관 등의 경비

프랑스 고등교육비의 총교육비에 대한 비중은 연도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연도마다 대략 11~13% 사이의 수준에 있다. 1982년도의 경우 고등교육비는 11.6%, 중등교육비는 33%, 초등교육비는 25.6%이다.

프랑스의 공교육비 2,459억 프랑이 교육 단계와 항목, 부담 주체별로 어떻게 몫이 나누어지는가를 보면 〈표 2〉와 같다. 초등교육의 경우 국민교육성이 60.5%, 지방 공공 단체가 38.1%를 부담하고 있고, 중등교육의 경우는 국민교육성이 90.3%를 부담한다. 한편 고등교육의 경우는 국가(국민교육성과 타성·청)가 88.5%를 부담하고 있어 프랑스의 중등·고등교육비는 거의 국가가 부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부대 경비 중에서 행정비는 국가가 97%를 부담하는데 기숙비와 식비는 국가가 37.8%, 가계가 44.0%를 부담하고 있다. 학용품 교재는 97.2%를 가계가 부담하고 있다.

총교육비에 대한 항목별 구성비를 보면 1982년의 경우 학교 교육비 82.1%, 관련 부대 경비

17.9%이다. 이를 학교급별로 보면 중등교육비 33%, 초등교육비 25.7%, 고등교육비 11.5%, 학교외 교육비·훈련비·기타 11.9%, 식비·기숙비 9.6%, 기타 부대 경비 3.1%, 물품 서비스 구입비 5.2%로 되어 있다.

3. 大學敎育費의 부담

고등교육비의 부담 형태를 살펴 보면, 첫째로 국민교육성은 대학교, 국립고등기사학교, 고등학교 상급 클라스, 동성 산하의 그랑제콜, 각종 교원 양성 기관의 유지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각 성·청도 각기의 그랑제콜, 전문학교의 교육 훈련 기관의 경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들 국립의 교육 훈련 기관은 원칙적으로 수업료는 무료이고 국방성의 이공과 학교(écoles polytechnique)와 같은 기관은 학생에게 준공무원 또는 사관으로서 급비가 지급된다. 둘째로 지방 공공 단체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국립대학의 경상 운영비, 시설비 등을 보조한다. 셋째로 정부 관계 기관은 CNRS나 INSERM 국립 핵물리·입자물리연구소와 같은 연구를 지원하거나 대학교나 일부 그랑제콜이 추진하는 특정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 교육비를 부담한다. 넷째로 기업체는 직업훈련세(Taxe d'apprentissage)라고 하여 기업체가 지불하는 봉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지불한다(1982년도에 .5%). 이것이 프랑스 고등교육비의 재원이 된다. 1983년 국립대학교, IUT, 그밖의 국민교육청 소관의 사립 고등교육 기관에 지불된 직업훈련세는 총액 7억 3,600만 프랑이었다. 다섯째로 가계 부담 교육비는 주로 사립 고등교육 기관의 수업료이다.[3]

프랑스에서는 국가가 고등교육비의 대부분(75%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서 국민교육성의 고등교육 예산을 정부 예산 등 관련 분야의 예산과 비교해 보면 〈표 3〉과 같다. 먼저 정부 예산에 대한 국민교육성 예산의 비중은(B/C) 연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15~19% 사이에 있다.

정부 예산에 대한 국민교육성 예산의 비중은 전년도에 비해 '85~'86년도에 감소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등교육 예산이 국민교육성 예산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13% 수준이고, 정부 예산 속에서의 비중은 2~2.5%의 수준에 있다.

〈표 3〉 프랑스의 정부 예산, 국민교육성 예산, 고등교육 예산의 대비(share of higher educational expenditure in public revenues and public education revenues in France)

단위 : 10억 프랑(unit : billion Franc)

구 분 (classification)	1977	1979	1981	1983	1985	1986	1987
(A) 고등교육관계예산(higher education expenditure)	8,360	10,474	13,086	17,596	20,144	21,048	21.70
(B) 국민교육성예산(public education revenues)	64.0	84.5	106.3	141.4	158.8	162.0	—
(C) 국가예산 (public revenues)	335.0	458.9	617.7	882.3	994.9	1,030.5	—
(A)/(B)(%)	13.1	12.4	12.3	12.4	12.7	13.0	—
(A)/(C)(%)	2.5	2.3	2.1	2.0	2.0	2.0	—
(B)/(C)(%)	19.1	18.4	17.2	16.0	16.0	15.7	—

자료 : 고등교육예산 OECD/IMHE, *Comment répondre aux restrictions financières*, par Jacques GUIN, 1985. 그밖에 SPRESE, *Tableau de Bord*, édition 1987, p.3.
1987년 자료 : Rapport sur le Project de loi des finances pour 1987, Annexe No.20, Assemblee Nationale, p.6.

3) 本間政雄, "フランスの高等敎育財政", 現代の高等敎育—高等敎育財政, No.273, 東京 : 民主敎育協會, 1986.7, pp.53~64.

4. 學生 1인당 敎育費

국민교육성 예산에서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연도별로 산출한 것을 보면 〈표 4〉와 같다.

경상 가격의 크기만으로는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는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총생산 디플레이터(deflator)를 사용하여 불변 가격으로 환산한 실질 증가율에서는 증가된 부분이 '83년을 제외하고는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료만으로 프랑스의 고등교육의 질을 단언할 수는 없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 나라 고등교육 기관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고등교육 기관의 종류와 전공에 따라 1인당 교육비는 달라진다. 여기에서 예시적으로 이를 살펴 보면 〈표 5〉와 같다.

5. 大學敎育費 支出 構造

프랑스의 국가 교육 예산인 '국민교육성 예산'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집행된다. 예산은 경상적 경비와 자본적 경비로 대별되고 경상 경비에서 가장 큰 몫을 점하는 것은 인건비이다. 학교 단계별, 즉 초등·중등 및 고등교육 예산이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가를 살펴 보면 뒤의 〈표 6〉과 같다. 여기에서 특기할 사항은 학교 단계별 구분 외에 Program Support로서 진로 지도, 체육 스포츠, 교육연구, 국제, 행정 등에 관한 항목을 따로 두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초·중등의 경우 경상 경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98.2%, 87.8%로 매우 높은 데 비해 고등교육 예산에서는 인건비가 76.8%로서 그밖의 비용이 17.7%가 된다.

6. 프랑스 大學敎育 財政의 特徵

이상의 고찰에서 프랑스 대학교육 재정의 특징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프랑스에서 고등교육 기관으로의 진학은 바카로레아라고 하는 국가 고시를 통과할 것을 요건으로

〈표 4〉 프랑스 연도별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trend of expenditure per student of higher education in France)

단위 : 프랑(unit : Franc)

구 분 (classification)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인당 비용(expend. per student)	10,153	11,300	12,333	13,290	15,016	17,383	19,505	20,428	21,327
실질증가율(growth rate ; deflated by GDP)	*98.8	100.0	98.6	95.1	96.1	98.9	101.2	99.4	98.0

*국내 총생산 할인율 적용

자료 : 일본 고등교육연구소, 고등교육현황, p.138.

〈표 5〉 프랑스 대학별 학생 1인당 교육비(expenditure per student in France, by institution)

단위 : 프랑(unit : Franc)

대 학 및 전공 (institution & major)	학생 1인당 교육비 (expenditure per student)
국립 콤삐에뉴 공과대학(compiégne engineering school)	54,000
국립대학 이과(science school)	27,800
국립고등기사학교(technical school)	47,000
국립대학 의과, 약학과(medical school)	19,400
국립대학 문과(humanities school)	9,700
국립대학 경제학과, 법과(economics and law Sch.)	6,900
그랑제콜 국립 이공학교(grand ecolé national natural Sci. Tech. Sch.)	250,000
그랑제콜 사립 상과학교(grand ecolé private management Sch.)	6,700

자료 : 상게서, p.138.

〈표 6〉 프랑스 국민교육성 예산의 지출별 구성(1985)

(composition of educational expenditur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France)

단위 : 백만 프랑(unit : mil. Franc)

구분 (classification)	계 (total)	경상경비 (current expenditure) 인건비(personnel)	기타 (others)	소계 (total)	자본적 경비 (capital outlay)
총계 (grand total)	158,834 (100.0)	140,041 (88.2)	13,933 (8.8)	153,974 (96.9)	4,860 (3.1)
초등교육비(primary education)	41,804 (100.0)	41,054 (98.2)	620 (1.5)	41,674 (99.7)	130 (.3)
중등교육비(secondary education)	84,354 (100.0)	74,096 (87.8)	7,029 (8.3)	81,125 (96.2)	3,229 (3.8)
대학교육비 (A) (higher education)	19,814 (100.0)	14,301 (72.2)	4,106 (20.7)	18,407 (92.9)	1,407 (7.1)
—대학(university)	12,095	10,728	1,085	11,813	282
—IUT, ENSI, 기사학교 등(junior tech., col.)	2,768	2,288	331	2,619	149
—그랑제타프리스만(grandsestablishment)	348	326	10	336	12
—연구비(research exp.)	1,116	175	25	200	916
—장학·후생비(scholarships)	2,994	350	2,630	2,980	14
—교원양성비(teacher tra. exp.)	494	434	25	459	35
초등·중등교원양성*(B)(teacher training)	5,071	4,530	490	5,020	51
STS, CPGE*(C)	1,636	1,537	99	1,636	—
post baccalauréat 교육비계(A+B+C) (total expend. of higher education)	26,521 (100.0)	20,368 (76.8)	4,695 (17.7)	25,063 (94.5)	1,458 (5.5)
진로지도, 체육·스포츠, 교육연구, 국제 행정 등 (program support)	12,863 (100.0)	10,590 (82.3)	2,178 (16.9)	12.768 (99.3)	95 (.7)

*표는 초등·중등교육비에 포함. ( ) 안은 %임.

자료 : SPRESE, Ministere de l'Éducation Nationale, *Repères et Références Statistique*, édition 1986, p.27.

한다. 바카로레아 이후의 각종 교육과정은 ①대학교, ② 그랑제콜, ③ 기술단기대학, ④ 상급기술자 양성과정, ⑤ 그랑제콜 준비급, ⑥ 전문학교, ⑦ 사범학교 등이 있다.

둘째, 대학교육 과정에의 입학은 원칙적으로 바카로레아 합격자이면 다 입학을 할 수 있는 '입학 개방제'로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랑제콜은 예외로서 격렬한 입학 경쟁 시험을 거쳐 학생을 선발한다. 그러므로 최근 대학 인구는 팽창되었고 대학의 교육 여건은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다.

셋째, 교육 예산의 학교급별 비중을 보면 초등교육 26%, 중등교육 33%, 고등교육 12%(1982년)의 수준이다(수학 연한은 초등 5년, 중등 7년, 고등 2~6년이다).

넷째, 정부 예산(국가)에 대한 국민교육성(문교부) 예산의 비중은 연도에 따라 15~19%, 고등교육 예산의 비중은 2~2.5%의 수준에 있고, 국민교육성 예산에 대한 고등교육 예산의 비중은 12~13%의 수준에 있다.

다섯째,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는 경상 가격으로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총생산 할인율에 의하면 교육비의 실질적 증가는 없다.

여섯째, 국민교육성은 교육비를 초등교육에 60.5%, 중등교육에 90.3%, 고등교육에 88.5%의 수준으로 부담한다. 초등교육은 지방 공공단체에 의한 부담(31.8%)도 적지 않으며 고등교육의 경우는 정부의 다른 부처에 의한 부담도 있다.

일곱째, 국립대학교의 경우에는 수업료는 무상이며, 국방성이 운영하는 이공 학교와 같은 학교에서는 학생을 준공무원 또는 사관으로 대

우하여 급비가 지급된다.

여덟째, 지방 공공 단체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국립대학의 경상 운영비와 시설비를 보조한다.

아홉째, 정부는 국책적 성격을 갖는 대학에서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다.

열째, 기업체는 기업 훈련세를 부담하여 대학 교육 재원을 지원한다.

열한째, 전공에 따라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차이가 크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국립대학의 문과의 경우 9천 7백 프랑인 데 반하여 그랑제콜 국립 이공 학교는 25만 프랑으로 26배가 된다.

열두째, 학교급별 교육비의 인건비 비중은 초등 98.2%, 중등 87.8%, 대학 72.2%로서 각각 비중이 매우 큰 편이다.

1985년도에 있어서 고등교육의 지출을 보면 인건비 66.8%, 장학후생비 13.3%, 운영비 12.6%, 투자적 경비 7% 등으로 되어 있다. *